

■ 영상 택배 시즌 3 - 스리랑카 한 달 살이 - 다섯 번째 이야기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이야기 5부

오늘 만나실 곳은 애덤스 산, 캔디, 갈레입니다. 애덤스 산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신앙 중심지이며, 여명과 미명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캔디는 15세기에 건설된 옛 도읍으로, 18세기까지 신할리왕조의 수도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 마지막 왕조 도시입니다.

누와라엘리야와 갈레는 식민지 시대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석굴 사원과 해변, 그리고 요새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번 영상 택배의 유튜브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IWRFAh5cVw>

정읍역의 이승만 1946년 6월 3일

1894년 갑오년의 깃발이 솟았던 정읍은 일제 강점기 무수한 신흥종교의 발상지로 위세를 떨쳤다. 해방 이듬해, 그곳 정읍에서 한반도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이승만의 발언이 터진 것은 1946년 6월 3일이었다.

1945년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은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승만의 대동단결론은 해방 후 헤아릴 수 없는 단체와 조직들이 범람하여 그 가입자 수가 인구를 훨씬 뛰어넘던 시절에 복음과 같은 말이었다. 거기에 더해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한 세기 전 독립협회 시절부터 큰 이름이었고 해방 후 좌우를 망라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이나 주석으로 거명되고 있었다.

이승만은 그러한 바람에 감동해서였는지 모르지만 귀국 후 믿어지지 않는 말까지 남긴다.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주의에 대하여도 찬성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부정선거에 맞선 마산시민들의 항쟁을 북괴의 개입이라고 외쳤던 15년 후엔 대경실색할 이야기지만...

1945년 말,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나라에 5년간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모스크바 삼상 회의 결정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를 두고 일사불란한 반대 투쟁으로 좌우가 분열되고 극심한 혼란에 접어들었던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후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소련이 삼상회의 결정 반대자들을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미국은 이에 반대하여 입씨름이 벌어지는 가운데 결렬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자그마한 팻말에 불과했던 38선은 굳어져 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관련 신문 기사>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처음으로 이남만의 단독 정부 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미 군정이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하자, 직접 미국에 가서 미 국무성을 대상으로 단독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돌아왔다.

1946년 5월 미소공위가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승만은 “자율적 정부수립에 대한 민성이 높은 모양이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수립되길 갈망한다.”고 발언한다. 그가 이야기 한 자율적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는 곧 밝혀진다. 각지를 돌아다니던 이승만이 1946년 6월 3일 정읍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이제 무기 휴회된 (미소)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며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 입네다. 그리고, 민족 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른바 분단의 첫 단추였다고 지탄받는 정읍 발언이다.

미 군정은 공식 적으로는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배척했다. 당시 미군정청 민정장관이었던 아서 러치는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 한 말이고, 나는 군정장관으로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그러하자 최초의 남한 단독 정부론으로서 당시만 해도 분단을 생각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승만은 자신의 정읍 발언을 ‘허보(虛報)’라 일컬으며 발을 빼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의 현대사는 그의 발언대로 움직인다. 1948년 2월 남북협상파와 이승만이 미국 하지 중장의 주재로 마주했을 때 김규식은 “조국의 분단이 결정되는 이때에 우리가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역적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승만은 “내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질 터이니 염려 말라”고 맞받아쳤다.

끝내 그해 5월 10일 38선 이남의 단독 선거가 치러졌고 한반도 남쪽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된다.

75년 전 정읍역의 이승만은 분단된 남과 북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을까?